

## 제목: 원리의 문제 제11장 <자유주의적 국가는 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가>

요약번역자: 이한

1 이 에세이에서 나의 주제는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그것들을 탁월하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공공 지원이 어느 정도나 주어져야 하는가이다. 사람들은 이 주제를 끝없이 논해 왔으며 논의는 항상 두 가지 연구방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두 논의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고상한(lofty) 접근이다.

2 경제적 접근은-나는 다소 느슨한 정의를 쓸 것인데- ‘공동체는 예술의 성격과 질이 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만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 전제로 삼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상한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바로부터 등을 돌린다. 그 대신 그 접근법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은지에 집중한다. 그 접근법은, 문화란 인간의 본성이 번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세련됨, 풍부함, 탁월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수준을 보장하는 탁월성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두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된 것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경제적 접근법은 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이 없는 상태나 있다 하여도 거의 지원하지 않는 상태를 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해석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시장이 사람들이 필요한 가격에 어떤 종류의 문화를 얼마나 원할지를 결정하는 일에 가장 효율적인 도구다.

사람들은 호메로스에 대하여 숙고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는 일에 그 기회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돈을 낼 것인가? 여기에는 미술관을 유지하는 비용, 외부 소유자로부터 그림을 사는데 드는 비용, 그러한 미술작품에 보험을 들고 이를 경비하는 비용 그리고 박물관이 위치한 곳의 재산 비용을 포함한다. 이를 알아낼 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박물관이 이 모든 비용을 반영한 입장료를 사람들에게 물리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박물관이 제공하는 것을 그토록 원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예술이 이같은 식으로 시장에 맡겨진다면-그리고 이는 인문학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공중은 자동적으로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진정으로 원하는 만큼의 예술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공공지원이 이 그림에 들어오게 된다면-예를 들어 램브란트 작품 앞에 서는 즐거움의 진정한 비용을 공공재정이 보조해주어서 미술관의 입장료가 진정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공중이 전체적으로 실제로 쓰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다른 곳에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를 희생하고) 예술에 쓰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접근은 거의 정의 그 자체로 공공 보조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인다.

4 고상한 접근법은 훨씬 더 유망한 길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이는 보다 관대한 국가 지원을 바라는데 이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접근에 따르면, 우리의 문화를 탁월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냐를 물어, 예술에 얼마를 집단적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제적 접근 방식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세속적이며 거의 속물적으로 보인다.

5 그러나 고상한 접근법을 꾀하기 이전에 우리는 최소한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접근의 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경험적 증거는 대학, 미술관, 그리고 다른 문화기관들에 대한 보조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잘 사는 사람들임을 가르쳐준다. 그들은 잘 사는 덕분에 예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지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인간 번영이라는 어떤 이상의 표제를 달고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미 더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이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로 보인다. 부유한 미술관에 줄 돈을 차라리 가난한 보건소를 지원하거나 가난한 이를 위한 공공의료보험(메디케어)을 보조하는 일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둘째로, 고상한 접근법은 오만할 정도로 간섭주의적이다. 정통적인 자유주의는 어더한 정보도 그 공적 자금의 용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한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더 가치있다는, 즉 타이탄[Uranus (하늘)와 Gaea(땅)와의 자식들 중의 하나] 벽화를 바라보는 것이 텔레비전으로 풋볼 경기를 시청하는 것보다 더 가치롭다는 류의 가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아마 타이탄을 보는 것이 더 가치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유관한 논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보다 부동 의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따라서 민주적이어야 하는 국가가 과세와 경찰력의 독점을 이용하여 소수만이 받아들이는 이 판단을 강제하는 것은 그른일이라는 점이다.

6 고상한 접근법에 따르는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시 경제적 접근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동정적으로 주의깊게 검토하게 된다. 어쩌면 경제적 접근법은 결국 예술에 대한 일정한 국가지원을 어느 정도 지지해줄 지도 모른다. 나는 경제적 접근법이 국가보조를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오직 보조금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시장만이 그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 시장 가격과 사람들의 선호 사이의 연결고리는 항상 그렇게 긴밀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에 돈을 쓰려고 하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체 내에서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부자가 캐비어를 사고 빈자는 빵도 없이 지낸다고 해서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빵보다는 캐비어를 가치있게 여긴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장 가격과 시장 거래는 공동체 전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인 항상 되지는 못한다.

7. 물론 기존에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규제받지 않은 시장이 진정한 필요와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다. 그러나 이 논리에 의하더라도, 빵에 대한 보조금은 정당화되지만 오페라에 대한 보조금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오페라를 가지 않는다. 돈이 있어도 오페라에 돈 쓰지 않는다. 오페라는 중간 계급에게 속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고상한 접근법에 대한 나의 최초 반대의 근거 중에 하나였다.

8 그러나 시장이 공동체가 어디에 돈을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정한 심사 장치라는 의견을 지지해줄 다른 잘 알려진 논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술과 인문학이 적절하게 이해되었을 때, 경제학자들이 공공재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며, 바로 그 이유에서 사적 소비자보다 아니라 공적 재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9 공공재 논변은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나므로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고 한다.

12 그러나 오페라를 보는 것은 쉽게 배제가능한 서비스라서 공공재라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공공재 논거의 지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공재 문제는 부분적, 혼합적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신의 경우 백신의 혜택은 배제 가능하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이득을 본다. 왜냐하면 백신의 번거로움과 비용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 덕택에 주위에 감염자가 적어져서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무임 착존자 (free rider) 문제 역시 시장에 맡겨 두었을 때 공공재의 무임 승차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적이 아닌 결과를 가져온다. 다들 백신을 안맞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백신은 국가가 국가의 비용으로 집중시켜 줘야 한다.

13 그렇다면 예술로 인하여 예술을 직접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무임 혜택을 받는가? 혼합 공공재 논변의 지지자들은 외재적 혜택으로 관광산업을 지적한다.

14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그러한 외재적 혜택만으로는 예술 지원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는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한 근거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 혜택이라면 예술에 지원할 바에 직접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예술의 기여는 예술을 직접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미학적이거나 지적인 경험과 같이 오히려 내재적인 데에 놓여 있다.

15 문화는 공동체 전체에게 내재적인 혜택을 준다는 주장은 친숙하고 건전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즉, 문화란 솔기가 없는 그물이며,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는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일반 문화(general culture)라는 말로 내가 의미하는 바는 단지 대중적인 소설이나 연극, 음악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나는 공동체 내에서 활용 가능하며 공동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구현되는 어법과 어휘, 문체, 비유, 수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16 일반 문화나 대중 문화에 대한 고급 문화의 영향은 상호작용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자가 후자들에게 갖는 다양한 영향의 차원에 주목해야 한다. 고급 문화는 대중 문화에 형태를 제공한다. 뮤지컬 코미디나 텔레비전 스타일은 오페라와 소설에서 발달해왔던 장르를 차용하게 된다. 고급 문화는 대중 문화의 참조 원천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숨쉬는 어휘들은 오이디푸스, 햄릿, 카르멘과 같은 고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파마 기계는 “카르멘”이라고 불려서 장미로 장식된 채 텔레비전에서 기마투우사 노래와 함께 선전된다. 카르멘을 참조하는 이와 같은 특수한 참조는 단순히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련의 관념의 편리한 체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급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치있는 관념들의 체계를 제공한다.

17 이 모든 것들은 친숙한 경구로 요약될 수 있겠다: 스펠오버(spillover-넘침효과) 스펠오버는 고급 문화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논변의

고무적인 출발점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급 문화는 백신처럼 공중 전반에 스피로버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예술 분야에 돈을 공급하는 직접적인 상업적 거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고급문화가 과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변 말이다. 불행하게도 이 논변에는 심대한 약점이 있다.

첫번째 비판은 시차(time lag) 문제다. 공공재의 표준적인 사례에서 깨끗한 공기나 국방 서비스 같은 것은 그것을 위해 공적 재원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직접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문화는 차세대에 혜택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 비판은 심각한 것은 아니다. 세대 간 부담이 공평하게 계속 연결되어 이루어진다면 모든 세대가 서로 받고 주고 하는 공정한 부담이 가능하다.

두번째 비판은 불확정성의 문제다. 국방이나 환경보전과 달리 예술지원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결실을 맺느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반응과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끝나는 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공공 프로그램이 향후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를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주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가?

세번째 비판은 더욱 근본적인 것이다. 국방이나 환경보전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원하는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국방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국방을 좋아하게 된다고거나, 환경이 깨끗해서 더 깨끗한 환경을 좋아한다고거나 그렇지 않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선호에 내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가격을 설정하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에 예술은 그것이 진작될 수록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예술이 애초에 사라지면 사람들은 애초 예술을 음미하고 예술과 상호작용하는 욕구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즉 원하지 않게 된다.

22 예술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이란 무언가 결여되고 빈약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평가는 일반적인 공공재 담론과는 달리, 그 혜택을 입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우리의'(이미 선호를 확립하고 있는) 평가이다. 따라서 오페라에 대한 취향은 석유 같은 물질적 재화에 대한 선호와는 다르다. 석유가 없으면 미래 세대는 실제로 결핍과 좌절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질적 생활 수준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어떤 훌륭한 에너지원이 있다면 그 물질적 생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페라가 없어지면 미래 세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오페라 있는 삶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23 우리 문화의 가치 있는 부분 중 일부를 남기고 발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냐는 질문도 역시 도움이 안된다.

ex) 문화 다양성이나 더 좋은 공원이나? → 공원의 가치도 로맨틱한 정경에 대한 문화적 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 문화적 경험에 의해 가치가 파악되는 것을 서로 비교하여 한 가지를 밀어주는 식의 공공재 논의는 무리가 있다. 문화적 경험이 완전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일 때에도 동일한 논점이 적용된다. 오페라가 더 이상 고급문화도 진지한 것도 아닌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 예술을 어느 정도의 질을 갖춘 수준으로 원하는가에

대한 답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25 결론적으로 경제적 접근(공공제 접근)은 예술에 공공의 지원이 주어져야 하느냐, 어느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

26 이제까지의 논의는 고상한 접근방법의 유용성도 훼손시키는 듯 하다. 예술은 i) 구체적인 예술 결과물도 가져오나 ii) 구조적인 틀(structural frame)도 산출한다. 구조적 틀이란 구체적인 예술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다.

27 나의 주장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일반적 문화의 구조적 측면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의 풍요로움을 옹호하는 것은 공리 증가 측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풍요롭지 않으면 아예 선호가 안생겼을 테니까. 삶의 양식에서 복잡성과 깊이가 구성원과 후손에게 열려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28 공동체의 문화의 핵심에는 언어가 있는데 언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공공제도 아니고 사적 재화도 아닌 사회적 재화다. 그러나 혼합적 공공제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단을 통해서 어떤 이가 말하고 쓴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책은 사야 본다) 그러나 전체로서 언어 자체로부터 배제될 수는 없다.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서도 무임승차자가 많은 것이 아무 승차자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하는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많을 수록 생산할 맛이 난다). 언어에서 사적인 상호작용은 집합적으로 공유된 언어를 결정한다. 우리가 쓰고 읽는 책, 우리가 제공하고 받는 교육, 그리고 수백만의 다양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느냐를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언어에 가해진 것의 수혜자이자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9 언어는 쇠퇴할 수 있다. 어떤 언어는 다른 언어보다 더 풍요롭거나 더 낫다. 후세대의 사람들이 특정한 구조적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생긴 언어의 쇠퇴를 싫어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상실을 후회할 어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익스피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그 많은 어휘들을 가지지 못했음을 후회할 수는 없다) 이는 또한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한 언어적 기회 구조를 가지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가상의 작가가 가상의 어휘를 만들어낸 경우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일반 문화의 구조일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대의 언어가 현재 우리의 언어가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처지가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닿는다. 물론 그렇게 말함에 있어 우리는 우리는 그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더 낮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주장을 전제해야 한다.

30 이것은 온정적 간섭주의인가? 우리는 더 세심한 구분을 필요로 한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이미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선호에 반하여 그들의 추정된 이익을 위해 간섭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다. 예를 들어 차를 몰 때 안전 벨트를 해야 한다거나 비정통적인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형사제재가 그렇다. 보다 정교한 형태는 이미 확립된 선호에 반대하여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선호라고 생각되는 것은 피하고 바람직한 선호라

고 생각되는 것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교육과 검열에 의한 선호 형성이다. 언어의 구조적 기회를 보호하는 것은 이들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첫째로, 기본적인 형태의 온정적 간섭주의와는 달리 구조적 기회 보호는 누구의 선호에도 반하지 않는다. 둘째로, 정교한 온정적 간섭주의와는 달리 미리 좋거나 나쁘다고 정해진 선호를 창출하고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언어의 구조적 기회 보호는 좁은 선택이 아니라 더 너른 선택을 허용한다. (정교한 온정적 간섭주의는 좁은 선택을 유도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빈곤한 언어보다 풍요로운 언어에서 사람들이 더 나은 처지에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31 이때까지 고찰해온 언어의 구조적 기회에 대한 문제는 예술, 인문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술과 문화의 구조는 공유된 언어의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사적 화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소설과 거짓말을 구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소설을 쓸 수 없었을 것이고 허구 서사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32 우리가 예술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어휘를 총체적으로 잃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예를 들어 서사와 거짓말을 구별할 수 없는 사회를 생각하는 것은 힘들다-그보다 덜 극적인 쇠퇴는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재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연속성에서 미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개념적 장치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우리의 문화의 역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인용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전 시대의 작품들을 낚시시대는 주제나 스타일로 이루어진 현대 예술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관념은 허구적 서사만큼이나 공유된 실천에 의존한다. 즉, 이와 같이 과거의 작업과 실천을 현재에 다시 재고하여 활용하는 이와 같은 실천은 오직 그 실천이 계속해서 활기 있게 살아 있는 형태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과거의 작업들이 계속 오늘날의 작업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만 가능하다. 문화의 연속성에서 발견되는 미학적 가치의 가능성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 연속성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단지 직접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연속성과 참조성의 구조적 가능성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공재 논변과 유사한 것이 그런 문화적 제도의 국가 지원에 대한 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33 문화의 언어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빈곤해질 수 있다. 연속성과 같은 특정한 가치의 차원을 잃음으로써가 아니라 덜 혁신적으로 됨으로써, 즉 새로운 가치의 차원을 개발하거나 정교화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말이다. 우리의 문화도 특별한 창조성을 발휘했던 순간들이 있다. 혁신의 능력은 두 가지 방식, 또는 두 가지 수준에서 전통에 의존한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전통 자체를 우선 가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혁신을 통해서 연속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재해석에 친화적인 열린 구조의 예술 형태를 가져야 한다. 예술의 경계가 너무 좁게 설정되면 혁신의 전통은 학구적이거나 전통적인 질서로 축소되어 시들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술은 단순히 친숙하거나 예쁘거나 비미학적인 목표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퇴화하게 된다. 전체국가에서 예술이 처했던 상황은 이러한 퇴화의 실제적인 결과를 상기시켜 준다.

34 문화의 주요 지류의 완전한 사멸 보다는 쇠퇴를 훨씬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문화가 제공하는 기회가 더 복잡하고 다양할 때 더 나은 처지에 있게 되며, 우리 자신의 문화의 복잡성을 미래에도 유지 발전시킬 임무를 맡은 수탁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

한 반대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경제적 접근과 그 접근이 대표 하는 민주주의적 가치 접근은 이에 대해서 정면의 반박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문화의 기회 구조를 넓히는 데 국가의 재원을 사용한다고 해서 미래의 공중이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고상한 접근법에 대한 두 가지 표준적인 반대를 주목하였다. 그것은 온정적간접주의와 엘리트주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국가의 보조가 특정한 미적 사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온정적 간접주의라는 혐의는 사라지게 된다. (특정한 선의 탁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엘리트주의라는 혐의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구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근본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35 우리는 여기서 논의를 끝낼 수 있는가? 단순히 국가의 예술 지원은 우리의 지적인 문화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물론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장할 뿐만 아니라 노고를 들여서 구조에 관한 묘사와 설명을 해내야 하고, 어떤 종류와 수준의 지원이 그 구조에 관한 설명이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논의에 사용되는 용어를 바꾸었지만 결론을 미리 다 따낸 것은 아니다.

36 어느 정도나 국가의 문화 지원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논점은 즉시 지적되어야 한다. 이때까지 전개된 논변은 문화의 보호를 공직자의 책무 중 하나로 삼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것이 공직자의 책무 중 가장 주요한 것이라거나 긴급한 목표로 만들지는 않는다. 공직자들은 여전히 국방이나 사회정의를 위한 지출과 비교하여 예술과 인문학에 얼마를 쓸 것인지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는 나의 논의 범위를 넘는 일이다. 그러나 예술과 그 밖의 것 사이의 선택은 결코 사치품과 필수품간의 선택이나 훌륭함과 의무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문화적 구조를 물려 받았으며 단순한 정의의 요구로서도 그 구조를 최소한 우리가 물려받은 만큼은 풍요로운 것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세대간 공정성의 문제).

37 그러나 나의 논변은 예술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그 지원에 상한선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한 지원은 특정한 전제 위에서만 정당화된다. 즉, 국가의 지원은 문화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그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한 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 보조의 규율 지침은 다음과 같은 목표가 될 것이다. 국가는 전체로서의 문화가 갖는 다양성과 혁신성의 질을 보살펴야 하지 그 문화의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의 탁월성을 보살피서는 안된다. 나머지는 전략과 전술의 문제다. 격률과 경험법칙은 위반되기 위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조는 내용에 무차별적인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 기관에 주는 기부금에 세금 면제를 하는 방식이어야지, 특정한 기관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차별기준이 도입된다면 전적으로 사적인 시장 거래에 맡기기에 자립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예술의 형태를 선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술관의 그림 수집이나 큰 대학의 포괄적인 연구와 같은 것이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특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의 분배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술과 학문에 있어 더 넓은 청중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문화의 부서지기 위한 구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